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물때에 따라 열리고 닫혔다 해서 터진목, 광치기 해변에서 일출봉으로 들어가는 물목이다. 지난 11월 5일 이곳에서 4·3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다. 이 일대는 4.3사건 당시 성산면과 인근 사람들이 동국대학교 담 너머 주정공장 창고에서 모진 고문 끝에 끌려와 처형된 현장이다. 참극을 벌인 특별중대 병사는 모두 서북청년단원이었다. 군번 없이 경비대나 민간복장을 한 이 부대는 성산포 일대에 주둔하며 무고한 양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다. 당시의 참상을 겪었던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

악의 평범성과 무사유(無思惟)

은 악마와 다름없었다. 서북청년단의 연원을 파헤친 윤영란 박사의 '한국전쟁과 기독교'는 서청의 정체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역저다. 이 책에서 주요 등장인물은 한 경직 목사다. 해방공간, 서북에서 쫓겨난 월남한 개신교인들은 영락교회를 설립한 한경직을 중심으로 속속 결집했다. 영락교회는 월남자들의 신앙 공동체이자 반공의 전투기지 역할을 하며 교회 소속 학생회·청년회가 서청 탄생의 중심이 됐다. 한경직 목사는 80년대 초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이웃사람이 신앙인 기독교도들이 무고한 양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잔악하게 고문하고 학살할 수 있었을까? 서청의 만행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마다 가졌던 의문이다.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학살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을 취재하고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밝힌 '악의 평범성'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악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아이히만의 '악마성'을 부정하고 악의 근원은 평범한 곳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아이히만은 평범한 가장이었으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모범적 시민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따르면, 서북청년단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하수인에 불과하다. 평소엔 착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도덕적인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서 어떤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학살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죄인가? 한나 아렌트의 대답은, 그들의 죄는 악의 근원인 무사유였다. 터진목에는 노벨문학 수상자 르 클레지오의 글이 적힌 기념비가 있다. "섬에는 우수가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마음 갑갑하게 만드는 이유다." 르 클레지오에게 답하고 싶다. 가해자에 대한 심판은 없고 피해자의 슬픔만 가득한 곳이라 그러하다고. 정치적 뱀배가 없는 섬나라는 50년의 침묵을 강요당했다. 제주 4·3의 가해자들은 아이히만처럼 법정에서 서기는커녕 정부의 지위 높은 고관인 됐거나, 정치지도자로 오랜 기간 세력을 가졌다. 그뿐이 아니다. 김익렬 연대장이 유고에서 밝힌 것처럼 제주의 영지들과 지식인들은 가해자들의 정체와 진상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안위와 후환이 두려워 덮어버린 것이다. 평화의 섬은 거짓이다. 이 섬의 우수를 걷어낼 길은 없는 것인가?

편집국 25시

'송악선언' 소통의 모습은 어디로...



이태운 정치부 기자 ity9456@ihalla.com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5일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정정 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원지사는 후속조치로 '정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하며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중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송악산 분화구를 중심으로는 80~90필지의 토지를 민간이 갖고 있다. 특히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

은 토지구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해당 지역구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알뜨르비행장 부지 환원이나 평화대공원 추진 등을 먼저 추진해 대정을 주민들의 한을 풀고 온 전세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좋다"면서 "중국어인들이 사들인 토지는 중요하고 대정을 주민들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지사는 발표된 주민들과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6기 시절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던 원지사는 어디로 갔을까. 당시 원지사는 1박2일 마을투어 시즌 1·2·3·4탄 등을 발표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그러나 민선 7기들어서는 무슨 이유인지 잦은 서울 출장 길에 오르고 있다. 이런 행보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는 원지사가 제주의 목표인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이뤄내기 위해서 일 것이라 믿어본다.

뉴스-in

원지사, "해저터널 논의 적절치 않다"

"제2공항도 아직 결말 못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구상에 대해 "전라도 입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논의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표명. 원지사는 18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이경용 의원의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제2공항에 대해 아직 결말이 안지어졌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조. 원지사는 "공항, 터널같은 국가근본 기반시설은 그때그때 선거의 이익에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점언. 오은지기자

"한동안 하늘길은 한산"

○...코로나19로 날개 꺾인 항공업이 잠깐 상상을 거친 뒤 다시 시련을 맞자 도내 업계 직원들이 한숨. 통계를 보면 항공 여객 운송량의 9월 생산지수는 17.9로 올해 4월 역대 최저치인 14.0으로 떨어진 뒤

매달 소폭 상승해 8월에는 28.0까지 올랐으나 9월 들어 다시 하락. 도내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며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보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한동안은 하늘길도 한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고대로기자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문화도시 조성 계획 관련 현장을 찾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적. 시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놓음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내년도 문화도시 지정에 위해 올해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중으로, 내년 1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원을 투입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해 시민주도로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기대 최대치인 14.0으로 떨어진 뒤

사설

퇴임하는 천주교제주교구장의 쓴소리

흔히 종교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웬 사회참여냐고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교활동이나 하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장에서 퇴임하는 강우일 주교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종교의 존재 의미는 백성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모르겠 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퇴임 인터뷰에서도 강 주교는 제주현안에 대해 여러 고언을 쏟아냈습니다. 제주 최대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 관광객 4000만명은 제주라는 작은 섬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수·쓰레기 문제가 악화되는 현실에서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강 주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도로가 날 때마다 수만 그루 나무가 잘려나가는 모습은 마치 나무의 시체 같다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고향 땅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모습에 슬픔을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강 주교는 그동안 종교지도자로서 사목서한을 통해 지역 이슈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 2018년 예멘 난민이 제주로 몰리면서 지역사회에서 배척하자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4·3 문제를 수면 밖으로 끌어내 교회 등 한국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발벗고 나섰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강 주교는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 대륙 없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제주 자연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강 주교의 쓴소리를 제주도 당국이 깊게 새겼으면 합니다.

농지투기 사범, '철퇴'만이 답이다

제주지역 농지투기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농지투기 행위는 헌법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일입니다. 농업인 소유 경지면적 감소는 물론 귀농인들의 농지 확보 어려움으로 농촌정착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 지가상승을 부추겨 농지를 투기대상으로만 여기는 풍조도 만연해 해 농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매우 큽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팔아넘긴 농업법인을 여럿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서귀포시지역 농지 총 8만232㎡를 사들인 후 무려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퇴짜했습니다. 법인 관계자 17명과 해당 농지를 사들인 188명 등 모두 205명을 적발했습니다. 농지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계획서 등을 허위 공들이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기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거나, 주말·체험영농 운영시 매입이 가능하데 그런 사실들이 없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겁니다. 농지투기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법인은 물론 개인들의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경찰의 계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몇년 농촌지역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채지주 농지'의 경우 상당수가 투기대상 매입 사례들로 지적됩니다. 인근 농민이 임의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농업인들이 계속 농지를 소유하는 사례들로 이어진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고, 투기에 직불금 부당수령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농지투기 범죄는 제주농민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이천서공 송독(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9일 부인 한 선애, 김승순, 김유승, 김경훈, 김재운, 김명실, 김표리

감사의 말씀 이번 김도삼(향년 8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9일 부인 김순희, 김유승, 김경훈, 김재운, 김명실, 김표리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갑씨 남옥(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9일 아들 전창호, 며느리 박순희, 딸 전운숙, 사위 진운림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통. 제주먹고사리뿌리와 등글레뿌리. 퇴밭 전, 밭, 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 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림계좌 901055-52-018318, 제주와농력을 품은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